

참여정부 1주년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

존경하는 홀스트 쾰러 IMF 총재, 밥 호크 전 호주 총리,

도널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

로렌스 클라인 교수님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국에서 오신 국제기구 지도자와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과거의 10년, 100년에 버금가는 속도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변화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전략인 시대입니다.

한국도 지난 1년 동안 큰 변화와 진통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혁신에 매진해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44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260여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고, 경기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비와 투자는 쑥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북핵문제는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기문제는 인기에 연연하거나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훗날 부담으로 남을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처했습니다.

손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고통받고 있는 신용불량자나 청년실업 문제, 그리고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큰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거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닥이 잡히고 희망이 보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닦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기본체질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면 머지않아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여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출하는 변화욕구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역동과 기회의 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와 참여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지금부터 말씀드릴 7대 전략과 250여개에 이르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또한 또박또박 실천해 왔습니다.

그 첫번째 전략은 '과학기술의 혁신'입니다. 국가과학기술체제를 혁신해서 인재양성-기술혁신-경쟁력 강화가 유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우수한 연구기관을 국내로 유치해서 한국이 동북아의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선정된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룩한 우리 연구팀의 쾌거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시장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작년 말 2년여를 끌었던 증권집단소송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회계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도 마쳤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도 시장개혁을 위한 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연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투명한 경영 시스템 구축과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구조조정이 다소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관련 법 체제도 기능별로 개편해서 규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욕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털어내고 필요한 규제라도 투명성을 높이고 통과비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셋째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참여정부 100일 국제세미나'에서 1~2년 내에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불법분규의 건수는 그 전년에 비해 60%가 감소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도 20% 정도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사·정 간에 노동계는 임금안정, 경영계는 고용안정에 협력하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성공을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 약속드립니다. 올해부터 불법분규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가겠습니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도 좀더 엄격하게 끌어올려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능동적인 개방정책’의 추진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개방형 무역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반대하는 이해집단들과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한국의 개방정책은 수동적으로 비추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개방의 걸림돌이 되어 온 취약산업의 미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능동적 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결실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얼마 전 비준되었고, 싱가포르·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도 시작했습니다.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가 곧 개시되고, 한·중·일 FTA의 타당성도 3국간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FTA는 물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세계적인 개방 대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부산·광양·인천 등 3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개성공단, 남북철도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남북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수도권 한 곳에 치중되었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다원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돼서 지역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도 올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민생안정과 복지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복지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봉쇄해서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회 혁신'입니다. 앞서 시장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시장개혁만으로 투명해지기 어렵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함께 투명해져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투명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던 정치자금 문제가 이제는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모두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자금은 매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왔지만 부패는 점점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과거에는 숨겨질 수 있었던 사건도 이제는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모두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재계와의 유착,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도 빠르게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선진국 수준

의 투명한 시장, 깨끗한 사회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 임기 중에 우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민지배의 그늘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내고,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성취해 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외환위기도 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7대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2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고 지혜를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제안은 앞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